

원 본	세이교 신문	발행일	2013-03-20			면(面)	3	
제 목	나루호도 토크	내 용	목적과 목표					
번역자	Y-TRANS	번역레벨	완직역	쫄직역	어중간	쫄의역	완의역	
						○		

(3) 2013년(平成25년) 3월 20일(水曜日)

海山 伊西 新井 森

(第3期第3号)

Q 矢島 部長さん、それってまだ「ナツキ」じゃないの？

目標がプレッシャーに感じます。

矢島 部長さん、プレッシャーは「ナツキ」じゃないの？

矢島 部長さん、プレッシャーは「ナツキ」じゃないの？

矢島本部長 & ハニーの
なるほどトーク

花の三丁目地区

矢島本部長

葉庭地区リーダー

浅野くん

Q 目的と目標の違いは何ですか？

矢島 部長さん、目的は「何のためにやるか」、目標は「何をやるか」です。

浅野 部長さん、目的は「何のためにやるか」、目標は「何をやるか」です。

A 「幸福にした人の数」を数えていきましょう。

「幸福にした人の数」を数えていきましょう。

A 私たちの目的は「広報流布を進めることだ。」

私たちの目的は「広報流布を進めることだ。」

야지마 본부장과 하니의-

[나루호도(과연^^) 토크]

테마 : 목적과 목표

참석 : 야지마 본부장, 하니 지구리더, 아사노군

Q : 목적과 목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사노 : 참가학회 활동에서는 항상 목표를 세우네요?

야지마 : 그렇죠. 아무 목표도 없다면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그저 되는대로 달려가는 것이 되고 말죠.

하니 : 아사노군도 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반면에 목표를 정하고 기한을 의식하면 '좋아, 해내자!'라고 진지하게 도전할 마음이 솟아오르지요.

아사노 : 확실히 그렇습니다만, 언제나 목표만을 염두에 두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떻하지...라고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하 니 :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야지마 부장님께서 '목표와 목적은 다르다'라고 지도해 주셨지요. 그 지도를 계기로 이후 목표가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야지마 : 이전에 창가고교 야구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는 코시엔 (대회 결승) 진출과 우승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야구를 통해 인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아사노 : 코시엔 출전이나 시합에 승리하는 것은 야구부원들의 인격형성 이라고 하는 목적의 '수단'이라는 말이죠.

하 니 : 그렇습니다.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 버리면 야구부 활동은 그저 힘만 들 뿐, 인격형성으로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말전도입니다.

야지마 : 차원은 다르지만 학회활동도 같은 원리라 하겠습니다. 광선유포를 추진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며, 활동의 목표를 잡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것을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낙담(실망)하게 되며,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에 환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 니 : 인간에게 있어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힘을 쏟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같은 힘을 쏟더라도 '여기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도전하는 과정에서 환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광선유포라는 목적을 잃지 않으면 어떤 활동도 목표를 향한 투쟁이 '환희'로 바뀌는 것입니다.

A : 우리의 목적은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것이다

Q : 목표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아사노 : 음... 아직 상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목적은 광선유포다'라고 마음에 새겨도 역시 목표 그 자체에 부담을 느끼게 되니까요

야지마 : 물론, 달성하기 위한 목표니까, 어느 정도는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서 기원하는 과정에서 지해도 솟아나고 도전하는 용기도 솟아납니다.

하 니 : 다만 그 부담감이 고통이 되어 버리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사노 군의 마음속에도 목표를 책임량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아사노 :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 니 : 학회활동의 목표는 절대 책임량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책임량'이라고 하면 '위에서 내린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회활동의 목표는 '(위에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숙명전환을 위해 벗의 행복을 위해 광선유포를 위한 자발적인 도전'입니다.

야지마 : 학회활동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하는'것인가를 수시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원해서' 할 때 힘든 속에서도 환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사노 : 확실히 '우인을 반드시 행복하게 하고 싶다!'라고 정하고 절복에 도전할 때, 흥교가 잘 되지 않더라도 목표에 도전하는 그 자체에 커다란 환희를 느낍니다.

하 니 : 이케다 선생님께서는 "절복은 어디까지나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성업(聖業)이다. (중략) 흥교확대와 함께 '행복해 진 사람의 수'를 성실히 늘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의 책임량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근성'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회활동을 통해 '행복해 진 사람의 수'에 중점을 맞춰 스스로 원하여 도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노 :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시키는 일만 하는 근성'을 떨쳐버리고 환희를 느끼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A : 행복하게 만든 사람의 수를 세어 나갑시다. <끝>